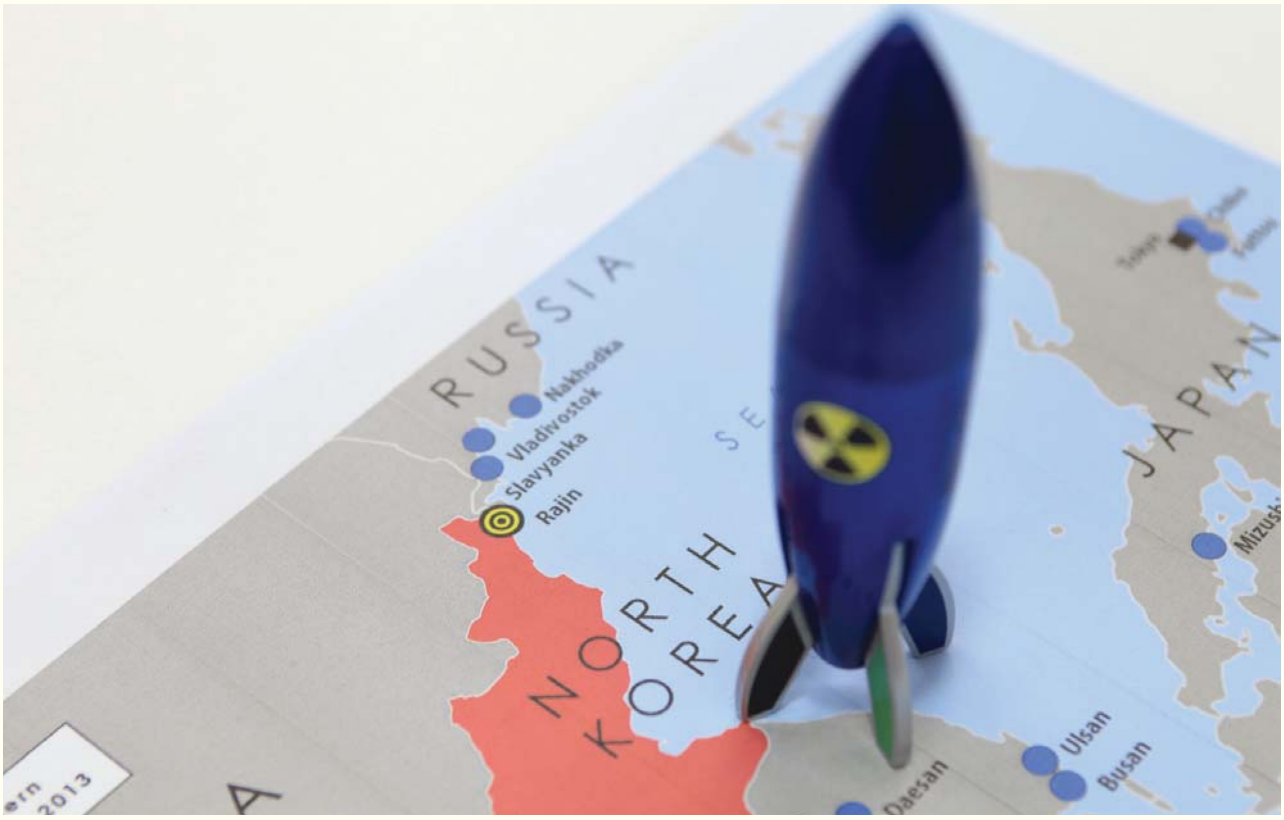
북핵 종착점과 우리의 군사적 안보

배봉원
(예비역 육군 소장)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한반도 위기고조

2017년 9-10월은 그 어느 때보다 북핵문제로 인한 우리의 국가안보 위기를 재삼 실감해 본 시기였다. 이는 북한이 9월 3일 수소폭탄급에 해당하는 6차 핵실험의 성공과 ICBM급 미사일 발사 실험을 연일 실시함으로써 촉발되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9일 UN 총회에서 북한의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비하하는가 하며, '북한 완전 파괴'라는 공격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다. 9월 23일에는 괌에 있는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NLL을 넘어 북한 동해 공역상으로 무력시위 비행을 하였고, 미국의 공개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이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며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

고 함으로써 미북간의 양보없는 '치킨게임'이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안보 위기의 고조는 북한의 ICBM급 핵무기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정도로 거의 완성단계 이르렀다는 미국의 판단에서이다. 9월 26일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북한이 핵탑재가 가능한 ICBM을 보유하게 되는 시기는 '아주 단시간의 문제'이며,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도 있고, 사용할 의지도 있다"고 말한 대목에서 미국의 위기의식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10월 5일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와의 회동에서 "북한과 관련한 목표는 비핵화"라고 하면서, "북한 독재정권이 미국과 동맹국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군 수뇌부는 대통령이 폭넓은 군사옵션을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하였고, 매티스 국방장관도 10월 9일 "미군은 대통령에게 활용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필요시 '군사적 옵션' 행사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9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행한 '국군의 날' 기념사에 잘 나타나 있다. 문대통령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하며,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정부는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토대로 군사적 대비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는 가운데 긴장 고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주력하며, "북핵 억지 능력을 강화"하고,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문대통령의 이러한 연설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을 경계하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북핵 위협에 대비하여 우리의 군사적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이 담겨져 있다.

북한 핵무기 종착점과 우리의 안보 딜레마

핵무기는 핵폭탄과 이를 운반하는 미사일의 결합체이다. 북한의 핵폭탄 능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6년 10월(1차) 핵실험을 했을 때는 그 위력이 1kt미만 수준이었으나 지난 9월 3일(6차)에 실시한 핵실험 때는 50~60kt 또는 100kt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원자탄의 위력은 40kt 미만, 수소폭탄의 전단계인 증폭핵분열탄은 40~50kt이며, 50kt 이상이면 수소폭탄으로 분류되는데, 북한의 핵은 이미 수소폭탄급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는 해석이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도 완성단계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스커드급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하여 왔으며, 핵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ICBM급 미사일은 1998년 대포동1호의 시험 발사를 최초로 실시하였다. 그 이후 북한은 자체 미사일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해 온 결과 금년 2월에는 중거리미사일 북극성-2호(사거리 2000km), 5월에는 중거리미사일 화성-12형(사거리 5000km), 7월에는 ICBM급인 화성-14형(사거리 7000km이상), 9월에는 또다시 화성-12형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였다. 작년 8월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사거리 2500km) 발사에도 성공한 바 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금년 3월 김정은 참관 하에 실시한 신형 고출력엔진(일명 백두산엔진)의 연소시험에 성공함으로써

현재 우리는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북한의 핵무기가 완성되기 전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든지,
아니면 북한의 핵무기가 완성되는 것을
바라본 후 우리 안보가 볼모가 되든지이다.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의 완성도 조만간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실험(6회중 4회)과 수십 회에 달하는 미사일 시험 발사의 대부분이 김정은 집권기(최근 5년)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김정은이 핵무기를 '체제 유지의 보증수표'로서 얼마나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지난 9월 15일 화성-12호를 발사한 후에 북한은 "'핵무력 완성'의 종착점에 다다랐고 미국 본토가 사정권인 ICBM을 완성할 때까지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서도 그것은 잘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북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외교 경제적 제재와 병행하여 군사적 옵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적 옵션은 복잡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은 미국과 동맹인 한국이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국력의 70%가 집중된 수도권이 북한의 장사정포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미국의 한 연구소는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경우 하루 2만여명의 인명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한미연합전력이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하는데 약 3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는 초전에 막대한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

더욱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은 국제전의 양상으로 확전될 수도 있다.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냉전의 잔재가 남아있는 곳이다. 오늘날 북한의 핵능력은 구소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56년 3월 소련의 「드보나」 핵연구소에 북한과학자 30여명이 파견되어 훈련을 받았고, 1965년에는 IRT-2000 연구용 원자로가 소련으로부터 제공됨으로써 오늘날 북한 핵능력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북한의 미사일도 최초 사거리 300km의 소련제 스커드-B로부터 시작되었다. 최근 미국이 북한 미사일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한 부품들이 사용되었으며,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차량도 중국에서 제작된 차량을 개조한 것임이 밝혀졌다. 또한, 이들 양국은 UN에서 미국이 제안한 대북제재 결의안에도 번번히 유보적인 입장을 보임으로써 여전히 북한의 후원자로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면 우리의 안보 딜레마는 더욱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무모한 도발 행태를 볼 때, 핵을 가진 북한이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남 군사적 도발과 압박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대미 억제용

이기 이전에 우리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요인이다. 우리가 최첨단 재래식 전력을 보유한다 할지라도 핵을 보유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데는 물리적 심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한미동맹에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이 핵사용을 위협한다면 한반도에 미군의 증원 결정도 쉽지 않을 것이며, 핵을 바탕으로 북미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결국 미군이 철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은 애시 당초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노렸던 것일 수도 있다.

우리의 군사적 안보와 선택

현재 우리는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북한의 핵무기가 완성되기 전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든지, 아니면 북한의 핵무기가 완성되는 것을 바라본 후 우리 안보가 볼모가 되든지이다. 물론 현실적인 국제정치 환경과 주변 역학 구도를 볼 때 어떤 선택도 우리 단독의 의지와 능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오늘날 북한의 핵무기가 완성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도 한미양국의 우왕좌왕한 대북정책에 기인한 점도 없지 않다. 북한이 1980년대 이래 세습정권 아래서 오직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한 일관된 목표를 지속되게 추진해온 데 비해, 한국은 5년 단위로 미국은 4~8년 단위로 정권이 교체되고, 때로는 서로 간에 일부 불협화음을 냄으로써 북한에게 핵개발의 시간만 벌게 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햇볕정책'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도, 미국의 외교 경제적 제재를 병행한 '강압정책'과 '전략적 인내'도 결국 북한의 핵무기 완성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으론 핵무기 완성단계에 있는 북한에게도 선택을 강요해야 한다. 북한의 절대 가치인 김정은 체제 유지의 취약점을 최대로 이용하여 핵무기를 보유하든지 또는 체제 붕괴를 당할 것인지를 압박해야 한다. 체제 유지를 목적으로 개발한 핵이 오히려 체제 유지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핵포기를 위한 협상의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은 시간낭비"라고 말하면서 핵포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북한도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최근 미국의 CBS방송은 "김정은이 정권의 생존을 위해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미북 간에는 뉴욕채널을 포함해 2~3개의 직접대화 채널이 열려있어 대화를 탐색중에 있으며,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전방위 압박을 구사해야 하다. 북한에 대한 외부의 지원 요소를 차단하고 약화시켜야 한다. 외교 경제적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할 때만이 효과가 있으며, 이는 양국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수 있는 미국만이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군사적 옵션도 북한 체제의 붕괴나 변화가 아닌 오직 북한의 핵무기 포기만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중국과 러시아에게 설득함으로써 이들의 암묵적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중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단초를 제공했다면 이제 그 능력을 제거하는 데에 양국이 적절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간의 강력한 공조가 절실한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초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의 안보 위협이기 이전에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요인이다.

우리 안보가 북한의 핵무기에
볼모가 되기 전에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 유지냐 또는 핵 보유냐의 선택을
강요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굳건한 한미공조를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우리의 군사적 대응능력을 강화하며,
주변국과의 외교협력을 강화하는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에 한미중 3국 순방길에 북핵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은 자제한다 할지라도 모든 대북 대화나 지원은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미간의 강력한 공조와 주변국과의 긴밀한 외교협력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된다. 10월 1일 북한 노동신문은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적 선택안이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의 매티스 국방장관이 9월 18일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이 있다"고 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옵션에 대해 한국을 볼모로 잡겠다는 공공연한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한국을 미국과 별개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혹시 우리가 미국과 달리 유화적인 제스쳐를 쓰면 우리를 달리 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자의적 소치이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9일 UN총회 연설에서 '북한 완전 파괴'를 언급한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강력한 연설이 북한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한 발언을 싸잡아 '상전의 전쟁광기를 부채질하는 하수인'이란 제목으로 별도의 논평을 내기도 했다.

우리는 군사적으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북한에게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북한의 보복 공격을 두려워하여 미국과의 공조된 노력을 기피한다면 이는 오히려 북한의 핵포기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신뢰관계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 미국의 전략자산을 바탕으로 한 한미연합전력은 북한에 비해 압도적이며 북한을 핵포기의 협상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8.18 판문점 도끼만행으로 인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김일성의 유감 표명을 받아낸 것은 항공모함을 포함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통해서 이뤄낸 결과였다.

지금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전념

할 때이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군사주권을 행사한다는 차원에서는 중요한 문제이긴 하나 북핵문제 해결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이 없는 북한의 군사력은 우리 주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지금은 북한 핵능력을 제거함으로써 그 여건을 조성해야 할 때이다. 공공연한 전작권 환수 논의는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한미간의 공조를 약화시킬 우려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 핵에 대비한 우리의 전력증강도 지속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군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과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하여 구축 중인 3축 체계 즉, 킬체인(Kill-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은 우리 군의 대응능력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3축 체계도 북한의 핵무기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천여발의 미사일 중에서 어느 것에 핵무기가 탑재되어 있는지를 찾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핵무기의 공격을 단 1발이라도 허용한다면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의 전쟁은 무의미할 뿐이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여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다시 전개하는 것과 우리의 독자적인 핵을 개발하는 문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유용한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로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도

이 모든 것 위에 우리는 기도의 무기를 구축해야 한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도 하나님의 주권아래 있음을 인정하며, 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역하 20:12) 라고 기도했던 여호사밧 왕처럼 모든 해결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 한사람으로 인해 이 성읍을 사하여 주신다고 하셨으니(예5:1) 이로써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더러 북한의 사악한 정권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루어 주신다고 한 말씀(막11:24)을 따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더 나아가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글 | 배봉원

필자는 1981년 육군사관학교 37기로 임관하여 야전 및 정책부서에서 두루 근무하였음. 1997년 9월에는(5년간) 합참 전략부서 실무자로, 2005년 11월에는(2년간) 합참 대북군사정책과장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으며, 2008년 장군 진급후에는 육군훈련소 참모장, 51사단장, 육군부사관학교장, 합참민군작전부장에 이어 수도군단부군단장을 끝으로 2015년 1월에 전역하였음. 현재는 합참 정책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음.